

새로운 한국어문학으로서 이주민 설화 구술의 성격과 의의 다문화 문식성의 질적 심화와 확장을 위하여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Immigrants Telling Tales as New Korean Literature - In order to extend and enhance the quality of multicultural literacy -

저자 (Authors)	신동훈 Shin, Dong-hun
출처 (Source)	국어국문학 (180) , 2017.9, 281-323(43 pages)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180) , 2017.9, 281-323(43 pages)
발행처 (Publisher)	국어국문학회 The Society of Korean Langage and Litera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45517
APA Style	신동훈 (2017). 새로운 한국어문학으로서 이주민 설화 구술의 성격과 의의. 국어국문학 (180), 281-323
이용정보 (Accessed)	건국대학교 202.30.38.*** 2020/11/26 09:30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새로운 한국어문학으로서 이주민 설화 구술의 성격과 의의* **

— 다문화 문식성의 질적 심화와 확장을 위하여 —

신동훈***

차례

1. 이주민 언어문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
2. 20~21세기 한국어문화의 지형과 설화
3. 현지조사를 통해 본 이주민 설화 구술의 양상
4. 문학적 담화를 통한 문화적 가치의 생산
5. 다문화 문식성 실현의 장으로서의 설화 구술
6. 맺음 : 이야기로 여는 미래 언어문화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한국어문화의 세계화와 미래적 발전이라는 화두에 대한 새롭고 실질적인 응답으로서 다문화 이주민이 구술하는 설화의 성격과 의의를 고찰했다. 이주민 대상 구비문학 현지조사 결과는 이들이 한국어문학의 새롭고 의미로운 주체가 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이들이 구연하는 설화는 민족적 특수성과 원형적 보편성을 함께 지닌 것으로서 높은 문화적 의의를 함유하고 있다. 구술문화의 정수로서 설화가

* 이 논문은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주관하는 2016년 토대기초연구 지원사업 “다문화시대 한국학을 위한 이주민 구술 설화 DB 구축” 연구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과제번호 2016-A431-0022).

** 이 논문은 2017년 2월 중국 소주대학교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서 “아시아의 민족이 동과 설화”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2017년 5월 “한국어문학의 미래와 국제화”를 기획주제로 한 국어국문학 국제학술대회의 연구발표를 거친 뒤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음.

***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갖는 미적인 힘과 세계관적 가치가 오롯이 살아 있다. 그것은 발화 주체와 내용 면에서 기존 경계를 넘어서 한국어문학의 새로운 영토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것은 해체상태로 내몰려온 설화 구술문화의 새로운 회복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주민 설화 구술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주목한 것은 문화적 소통과 확장의 과정이다. 이주민과 정주민이 한자리에서 설화를 말하고 듣는 과정은 그 자체로 문화실현의 장으로서 성격을 지닌다. 설화를 통한 다문화적 소통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 언어문화적 지식 정보의 확장이 효과적이면서도 밀도 있게 이루어진다. 둘째, 문화의 이면적 맥락에 대한 통찰을 통해 타문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깊은 이해로 나아갈 수 있다. 셋째, 설화 구술은 상호 교감을 통한 문화의 쌍방향 이해와 확장을 효과적으로 실현한다. 넷째, 설화 구술을 통한 문화적 소통은 자연스러운 인간적 교감과 융화를 가능케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 양상을 실제 사례를 통해 살폈거니와, 이주민과의 설화적 소통은 어문학교육의 새로운 화두인 다문화 문식성을 오롯이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 할 만하다.

이질적 문화와의 만남은 문화의 발전적 재구성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된다. 이주민이 보유한 설화를 한국어문학으로 적극 포용하여 문화적 자산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것은 이주민들의 자기정체성 확보와 자존감 향상에 도움을 주며, 한국 언어문화의 갱신과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다. 한국인과 이주민의 경계를 넘어서 설화를 통한 문화적 소통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름답고 행복한 언어문화를 펼쳐내기 위한 가깝고도 효과적인 길이다.

핵심어 다문화 사회, 결혼이주민, 구비문학, 설화, 문화적 정체성, 문화적 소통, 다문화 문식성

1. 이주민 언어문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

21세기 대한민국은 다문화사회로 본격 진입한 상태다.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 유학생을 포함하여 백만 명이 훨씬 넘는 외국인 이주민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나날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자국민들끼리 만나는 경우를 제외

하면, 이들 이주민들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주민을 포함한 외국인의 한국어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그간 주로 언어학 내지 언어교육의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문학의 경우에는 외국인에게 한국어문화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 내지 통로로서 부분적 관심이 주어져 왔을 뿐이다. 대개 한국문학을 외국인한테 전하여 습득시키는 데 주안점을 둔 일방향적 접근이었다.

이제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많은 이야기를 담지하고 있는 언어문화적 주체다. 개인적 사연 외에 어려서부터 접한 신화와 전설, 민담 등이 내면적 자기화가 이루어진 상태로 기억에 녹아들어 있다. 설화로 통칭되는 그 이야기들은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문화적 특수성과 함께 보편적 원형성을 지닌다. 이들은 낯설고 재미있으며 특별한 감동과 교훈으로 마음을 움직인다. 그 이야기들은 이주자 자신 외에 한국인들에게도 유의미하고 가치가 있다.

필자는 이주민 대상 설화 구술 조사 프로젝트를 책임 진행하고 있다. 전국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건너온 다문화 이주민들로부터 설화를 위시한 자국 구비전승 자료를 채록하여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 인터뷰와 구술은 모두 한국어로 이루어진다. 당초 기대했던 바와 같이 대다수 이주민들이 자국의 설화들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이주민들에게 자국 설화를 듣는 일은 새롭고 특별한 경험이었다. 처음 만나는 흥미롭고 매력적인 이야기가 많았다. 세계의 원형적인 구비문학 작품을 현장에서 우리말로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작은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것은 이주민들한테도 무척 새롭고 특별한 경험이었다. 일상생활을 위한 불편한 도구였던 한국어가 주체적인 문화표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새롭고 놀라운 발견이었다. 자국 설화가 한국인들한테 흥미롭고 소중하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에 고무된 제보자들은 기억 속에 침전되어 있던 이야기들을 성의껏 찾아내어 열의 있게 들려주었다.

설화를 위시한 이주민 보유 구비문학은 인류 공통의 귀중한 문학적 자산이다. 그를 통해 한국어문학¹⁾의 상상력과 표현력이 새롭게 확장될 수 있으며 언어문화의 발전적 개화를 위한 동력이 마련될 수 있다. 21세기 어문학교육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다문화 문식성(文識性; literacy)’²⁾의 질적 심화와 확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이만한 통로를 따로 찾기 어렵다. 그것은 스토리텔링을 축으로 한 언어문화 콘텐츠의 미래적 발현에도 큰 이바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화 구술조사와 분석은 아직 수행된 적이 없다. 한국어문학의 관점에서 이주민 설화에 접근한 논의도 발견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그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 기술이자 분석이 될 것이다. 논의는 현지조사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경험과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인상적인 조사사례를 단면적으로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어문화의 세계화와 미래적 발전이라는 추상적 화두에 대하여 하나의 새롭고도 실질적인 응답을 전해주는 논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여기서 ‘한국어문학’과 ‘한국어문화’는 각각 ‘한국의 어문학’과 ‘한국의 언어문화’를 뜻하는 말로 쓴다.

2) ‘문화적 문식성’을 국어교육적으로 개념화한 박인기의 논의(박인기, 『문화적 문식성의 국어교육적 재개념화』, 『국어교육학연구』 12, 국어교육학회, 2002)가 널리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이를 다문화 사회현상에 적용하여 재개념화한 것이 ‘다문화 문식성’이다. 김혜영과 서혁, 윤여탁, 김미혜 등의 논의를 거치면서 다문화 문식성의 발현은 21세기 (한)국어교육 및 문학교육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혜영, 『다문화 문식성 교육 내용 체계화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2010; 서혁, 『다문화 시대의 국어교육과 다문화 문식성 교육』, 『국어교육연구』 48, 국어교육학회, 2011; 윤여탁, 『다문화 사회의 문식성 신장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전략—문학교육의 관점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94, 한국국어교육학회, 2013; 윤여탁, 『다문화교육에서 문학교육의 지향과 다문화 교사 교육』, 『다문화사회연구』 6권 1호,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2013; 김미혜, 『다문화 문식성 신장을 위한 문학교육의 방향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6권 1호,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2013 참조.

한 가지 덧붙일 사실은 이 글에서 말하는 문식성(literacy)에 ‘글’과 함께 ‘말’의 측면이 포괄된다는 점이다. ‘언식성’이나 ‘구통력’ 등으로 번역되는 ‘oracy’가 그것이다. 문학(literature)이 언어예술로서 구비문학을 포괄하는 것에 준하는 개념 설정이다.

2. 20~21세기 한국어문학의 지형과 설화

언어는 추상적 개념을 나타내는 기호인 동시에 구체적 형상을 담아내는 기호이다. 사람들은 언어를 통해 삶을 논리적·분석적으로 인식·소통하는 한편으로 삶을 형상적·총체적으로 인식하여 공유하기도 한다. 이 중 형상적 언어행위의 정수에 해당하는 것이 문학이다. 문학은 언어를 감성적이고 함축적이며 미적인 형태로 실현해낸다. 문학을 통한 형상적 소통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기본적 요소가 된다.³⁾

문자가 생겨나기 훨씬 전부터 사람들은 문학적 언어행위를 폭넓게 수행해 왔다. 삶의 현장 전반에서 상시적으로 발현돼온 신화와 전설, 민담, 민요, 무가 등의 구비문학이 그것이다. 문자와 기록의 시대에 접어든 뒤에도 구비문학은 언어문학의 기본 축으로서 중요한 구실을 해왔다. 기록문학이 크게 발흥한 조선후기만 하더라도 구비문학은 양적·질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는 가운데 문화적 역할을 확장해 왔다. 이야기꾼을 축으로 한 이야기문화가 발흥하고 판소리와 탈놀이 같은 연희문화가 세력을 떨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야기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상상적·허구적 담화로서의 설화가 사실적·경험적 담화와 더불어 일상적 언어문학의 변함없는 큰 축으로 자리를 지켜왔다. 마을 정자나무 아래나 우물가, 사랑방과 마실방 등 수많은 생활공간에서 설화는 빠질 수 없는 주인공이었다. 장터거리나 객줏집 등지에서는 이야기꾼들이 펼치는 특별한 문학적 경연이 펼쳐지기도 했다. 사람들은 설화를 통해 구김 없는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는 가운데 거기 녹아들어 있는 인간과 세상에 대한 인식을 내면화했다. 그것은 미적 쾌락과 교훈이 함축적으로 발현되는 언어문학의 빛나는 장이었다.⁴⁾

3) 신동훈, 『삶, 구비문학, 구비문학 연구』, 『구비문학연구』 제1집, 한국구비문학회, 1994, 152~153쪽.

4) 설화 구연현장의 문화적·교육적 성격과 의의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강진옥, 『이야기판과 이야기, 그리고 민중』, 서대석 외, 『한국인의 삶과 구비문학』, 집문당, 2002, 33~51쪽 참조.

이와 같은 언어문화적 지형은 근대에 들어와 중대한 변화를 겪었으니, 상상적 담화로서 설화의 해체적 약화가 그것이다. 이성적·경험적 사고가 전일화되고 합리적 생활방식이 보편화되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화였다. 탈경험적 상상을 기본 장치로 삼는 이야기에 대한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은 점차 약화되었으며 설화는 자연스럽게 잊혀져 갔다. 이러한 현상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근대교육의 세례를 받은 세대가 현실적 실용성이 미약한 허구적 담화에 대해 나타낸 태도는 냉담한 무관심이었다. 일제말엽의 열악한 현실과 한국전쟁의 참혹한 체험은 생존의 절박함에서 유리된 ‘허구적 상상놀이’를 더욱 허망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 설화는 ‘먹고 사는 일’에 우선적 가치를 두는 산업화 시대 삶의 방식과 정서에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그렇게 설화는 우리네 삶 속에서 시나브로 지워져 없어지게 되었다.⁵⁾

오랜 이야기 현지조사 경험을 종합해 볼 때, 1900~1920년대에 출생한 세대는 그 선대의 설화문화와 일정한 접촉을 이루었던 세대로 이해된다. 설화를 귀 기울여 들은 사람들이 많고 그것을 직접 들려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유력한 설화 제보자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쪽이었다. 이들을 주 조사대상으로 삼은 1970~80년대의 『한국구비문학대계』 설화 조사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럴 만한 일이었다. 1980년대 말까지 탑골공원에서 이야기꾼들의 경연이 상시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전통적 설화문화의 마지막 꽃을 피운 것 또한 이들 세대가 주축이 된 일이었다.⁶⁾

5) 언어문화의 변화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가운데 복잡적이고 다면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필자가 제시하는 이와 같은 진단은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것일 수 있다. 실증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기 어려운 바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러한 논의를 제시하는 것은 그것이 노인세대를 축으로 한 수많은 제보자들을 대상으로 수십년 간의 이야기조사 과정에서 두드러진 특징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며, 또한 그것이 한국 언어문화사를 조망하는 ‘하나의’ 유효한 시각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6) 탑골공원의 이야기관 문화에 대해서는 신동훈, 「이야기꾼의 작가적 특성에 관한 연구-탑골공원 이야기꾼의 사례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6집, 한국구비문학회, 1998 참조.

문화의 저변에서 잔존적 형태로나마 명맥을 이어오던 설화문화는 1920년대 출생 세대가 퇴장하고 1930~40년대에 출생한 세대가 노년층의 주류가 되면서 결정적인 해체 상채로 접어들었다. 현재 70대나 80대 연령의 노년층 집단에게 있어 설화문화는 거의 전무하다고 보아도 좋다. 이들은 민담을 비롯한 허구적 담화에 작은 관심과 가치도 두지 않는 쪽이다. 이들의 관심은 현실적 삶에 집중돼 있으며, 주고받는 담화 또한 경험적·현실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에 집중돼 있다. 설화적 담화를 기억 속에 담아둔 이들이 거의 없어서 설화채록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다. 설화를 찾아다니는 것을 쓸모없는 일처럼 여기는 것이 이들의 일반적 시각이다. 6.25체험담 같은 현실적 경험담에 적극적인 관심과 구연 의욕을 나타내는 것과 단적으로 대비되는 양상이다.⁷⁾

주목할 사실은 이러한 언어문화가 그 아랫세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는 것이다. 60대와 50대, 그리고 40대에 이르는 연령층의 세대까지도 현실적 합리주의가 주류적 지향을 이루어 왔다. 경험과 지식, 설명과 주장 쪽으로 완연히 치우쳐 있는 것이 이들 세대 언어문화의 특징이다. 그들의 일상적 담화 속에 설화는 의미 있는 자리를 갖지 못한다. 말장난 중심의 우스개 이야기나 음담패설 등이 삽화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정도다. 언어문화 특히 구술문화 속에서 설화가 최소한의 변수도 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이들이 주축이 되어 형성해온 20세기 후반 한국어문화의 실상이다.⁸⁾

7) 이야기문화의 세대별 특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신동훈, 『이야기문화의 세대별 양상과 경험적 담화』, 『구비문학연구』 제17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3 참조.

8) 살펴보면 국어교육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주체들 또한 이러한 언어문화의 자장에서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주류적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설화는 유치하고 허망하며 종잡기 어려워 교육적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운 대상으로 치부되는 쪽이다. 중등교육의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다 큰 아이들한테 옛날이야기 따위가 무슨 효용이 있겠느냐는 식이다. 그러다 보니 교육과정에서 설화는 단지 구색 맞추기 형태로 끼워 넣어질 따름이다. 그나마 구술 언어적 맥락과 가치가 퇴색된 채 기록문학에 준하여 가르치고 배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교육 현실이다. 신동훈, 『구술소통능력과 구비문학-설화의 인지체계와 의미구조를 중심으로』, 『화법연구』 제33호, 한국화법학회, 2016, 80~81쪽.

이와 같은 언어문화의 지형은 21세기로 들어오면서 변화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상상적·설화적 스토리 문화가 아래로부터 새롭게 떠오르는 흐름에 주목하게 된다. 2,30대를 주축으로 한 세대는 앞 세대에 비해 허구적·상상적 담화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훨씬 높은 쪽이다. 판타지나 인터넷소설 열풍 같은 데서 이를 엿볼 수 있다. 그 아래로 10대 청소년의 경우 설화적 상상세계에 대한 관심과 지향이 더욱 증폭되어 새로운 문화적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즐기는 웹툰과 웹소설, 게임 등은 허구적이고 초월적인 상상으로 가득 차 있다. TV 드라마와 영화 등도 설화적 상상을 반영한 것들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구술현장으로 눈을 돌려보면, 아동들한테 옛이야기를 들려주거나 구어체 옛이야기를 읽어주는 활동이 이전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들에게 옛이야기 구연을 가르치는 일도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흐름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할 바가 아니다. 설화적 담화가 언어문화의 한 축을 이루는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에 해당하는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추세로 봄이 합당하다. 그 흐름을 오히려 살려내서 문학적 언술행위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확보해 가는 것은 현 단계 한국어문화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⁹⁾

여러 세대에 걸쳐서 설화문화의 소외와 해체가 전면화한 형국에서 그 회복의 동력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인터넷과 TV 등에서 상상적 스토리가 힘을 내고 있다지만, 일상적인 담화의 장에서 설화를 말하고 듣는 일은 여전히 낯설고 어색하다. 해본 적이 없어 익숙지 않으며, 해보려고 해도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가닥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상적 언어생활이나 언어교육 현장에서 설화가 즐겁고 자연스럽게 소통되는 상황이 펼쳐지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언어문화의 전향적 변화를 위한 동력을 내부가 아닌 외부

9) 신동훈, 『구술소통능력과 구비문학-설화의 인지체계와 의미구조를 중심으로』, 『화법연구』 제33호, 한국화법학회, 2016, 81~82쪽.

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이주민을 두고 하는 얘기다. 김태원은 한국사회의 주변인이자 이방인으로서의 결혼이주민이 두 개의 문화에 걸쳐 있는 경계적 존재임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문화지형을 변화시키는 가치적 매개자이자 잠재적 가치생산자가 될 수 있다고 했거니와,¹⁰⁾ 이러한 관점은 한국어문화에 훌륭히 적용될 수 있다. 이주민들은 자국문화와 한국문화를 중층적으로 담지하고 있으며, 언어적으로 자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언어적·문화적으로 특별한 능력자에 해당한다. 그들이 갖춰 지닌 문화적 형식과 내용은, 예컨대 어릴 적부터 접해온 신화와 전설, 민담, 속담 등은 언제든지 한국어라는 새로운 코드로 변환되어 발신될 수 있다.

외국인한테 자국 설화를 청해 듣는 것은, 또는 외국인에게 설화를 들려주는 것은 어색한 일이 아니다. 설화는 지역적·민족적 특수성과 함께 보편적 원형성을 지닌 언어형식으로서 경계를 넘어선 소통성과 감응력을 지닌다. 문제는 제보자가 설화를 제대로 구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설화 내용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거나 언어적으로 잘 구사하지 못할 경우 온전한 설화 구술은 어렵게 된다. 한국 거주 이주민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사정이 어떤가 하면 설화 구술을 무리 없이 행하는 제보자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제보자 연령대가 30대에서 60대 사이로 젊은 층에 속하는데도 별다른 어색함이나 거부감 없이 설화 구술에 나서고 있으며 스토리 맥락을 잘 잡아서 이야기를 구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어 능력은 다소 부족하지 모르지만 이들의 언술이 갖는 가치는 그 이상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문화적 가치 생산 과정으로서 이주민 설화 구술에 관심을 나타낸 사례는 없었다. 생애담 내지 생활사를 축으로 한 조사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을 따름이다.¹¹⁾ 생애 체험을 전하는 담화가 문화적으로 중요

10) 김태원, 『생활세계와 이방인으로서의 결혼이주민』, 『현대사회와 다문화』 4권 1호,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2015, 9~13쪽.

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분명이지만, 서사적 함축성과 완결성, 전이성 등에서 설화와는 질적 차이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오롯한 문학적 담화로서의 설화를 통해 우리는 문화적 가치를 담지한 언어적 소통의 새로운 국면과 만날 수 있다. 이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로 넘어갈 시점이다.

3. 현지조사를 통해 본 이주민 설화 구술의 양상

필자가 참여하는 이주민 대상 설화 현지조사 작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사업명 : 한국학진흥사업단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
- 과제명 : 다문화시대 한국학을 위한 이주민 설화 구술자료 DB 구축
- 연구기간 : 3년 (2016.9.1 ~ 2019.8.31.)
- 참여인원 : 총 14명

현지조사 대상은 결혼이주민과 이주노동자, 외국인 유학생을 포괄하되 결혼이주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조사 내용은 이들 이주민들이 한국어로 구연하는 모국의 설화 자료를 녹음 채록하고 편집 정리하여 DB를 구축하는 것이다. 신화와 전설, 민담 등 설화를 기본 대상으로 삼는 가운데 생애담과 신이체험담을 포괄하며, 속담과 속신어, 금기어, 수수께끼, 민요 등도 곁들여

-
- 11) 그 주요 사례로, 김영순 등이 이주민들로 하여금 본국의 생활과 문화를 글과 말로 ‘스토리텔링’ 하도록 하고 그 특징과 의의를 점검한 바 있으며, 김영옥이 결혼이주여성의 민족지적 이야기생산 방법을 논구한 적이 있다. 김태원은 생애구술사를 통해 이주민의 주변인적 정체성과 함께 문화적 적응 과정을 살피는 작업을 수행했다. 김영순·허숙·옹웬뚜언 아잉, 『결혼이주여성의 자기문화 스토리텔링 활용 표현교육 사례 연구』, 『비교문화연구』 제25집,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2011; 김영옥, 『결혼이주여성의 경험 쓰기 : 새로운 재현 방법으로서의 민족지적 이야기 생산』, 『여성학논집』 31집 1호,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2014; 김태원, 『생활세계와 이방인으로서의 결혼이주민』, 『현대사회와 다문화』 4권 1호, 대구대 다문화사회연구소, 2015.

수집하고 있다. 모국 설화 외에 한국 설화도 아는 것이 있으면 구술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조사자들이 한국 설화나 속담 등을 제시하는 가운데 쌍방향 소통을 꾀하고 있다. 조사는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삼는다. 이주민들이 최대한 편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신이 아는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구연 과정에서 준비해온 메모를 참고할 수 있으나, 책을 보고 읽는 형태의 구술은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기억을 매개로 한 구술이라야 자연스러운 언어표현과 함께 설화적 화소와 서사맥락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관점에 따른 것이다.

현지조사는 조별 조사 형태로 진행 중이다. 3개 조가 다양한 경로로 제보자를 섭외하여 각기 월 2~4회씩 조사에 나서고 있다. 2017년 6월 말 기준으로 60여명의 제보자로부터 600편 이상의 설화와 100편 가량의 속담·속신어(해설 포함)를 수집하였으며, 생애담과 민요, 수수께끼도 일부 채록했다. 설화 구연에 참여한 제보자들은 대개 아시아 지역에서 온 여성들로서, 출신국은 중국과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몽골, 필리핀, 일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파라과이 등이다. 이주유형별로는 결혼이주민이 가장 많다.

현지조사에 나선 연구원들이 제보자들에게 설화를 제대로 전해 듣기까지의 과정은 그리 쉽지 않았다. 설화 구연은 그 자체로 낯선 일이었다. 모국이나 한국에서의 생활사와 일화를 청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옛날이야기’를 해달라는 요청은 거의 받은 적이 없는 상황이었다. 조사자들이 원하는 것이 신화와 전설, 민담 같은 상상적 담화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는 데 꽤 시간이 걸릴 정도였다. 예상하지 못했고 준비가 안 된 상태이다 보니 첫 만남에서 설화를 원활하게 구연하기가 어려웠다. 원래 알고 있던 이야기가 있음에도 곧바로 구연하기에 부담을 느끼는 쪽이었다. 물론 모국어가 아닌 한국어 구술이라서 더 그러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첫 대면에서의 설화 구술은 모국의 유명한 이야기들을 개략적으로 들려주는 정도로 그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다음 만남 때는 상황이 달랐다. 그들은 설화를 본격적으로 구연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러 제보자들이 옛 기억을 되살리는 한편 부모님과 책,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연할 이야기의 서사적 맥락을 갈무리해 둔 상태로 조사자들을 맞았다. 당연한 결과로, 설화 구술이 더 다양하고 풍부하며 짜임새 있게 진행될 수 있었다. 다음과 같은 식이다.

▶ 사례 1 : 누구엔티미두이엔(한국명 원지영, 베트남, 여, 1989년생, 결혼이주 6년)

▷1차조사 - 총4편 (약 45분)

(1) 일곱형제 이야기(민담) / (2) 찌우까우 이야기(전설) / (3) 순가락과 젓가락을 끝에 잡으면 멀리 시집간다(속담) / (4) 바위가 된 여인(전설)

▷2차조사 - 총9편 (약 100분)

(1) 개구리 아들(민담) / (2) 자장가(노래) / (3) 꾸우정섬의 절 이야기(이적담) / (4) 고양이 먹고 받은 재앙(이적담) / (5) 어머니 구원한 아들의 효심(전설) / (6) 선녀와 나무꾼(한국설화) / (7) 대나무 속 엄지여인(민담) / (8) 달 속으로 간 꾸이(전설) / (9) 이주생활담

▶ 사례 2 : 모우에 히로코(일본, 여, 1967년생, 결혼이주 19년)

▷1차조사 - 총2편 (약 20분)

(1) 혀 찢린 참새(민담) / (2) 복숭아동자 모모타로(민담)

▷2차조사 - 총6편 (약 40분)

(1) 하녀 키쿠의 원한(민담) / (2) 마스크 여인(민담) / (3) 원숭이와 게(민담) / (4) 이쿠상의 피(민담) / (5) 주먹밥 할아머지(민담) / (6) 혀 찢린 참새(민담)

▷3차조사 - 총13편 (약 80분)

(1) 빨간 도깨비와 파란 도깨비 / (2) 밥 먹고 누우면 소 된다(속담) / (3) 옷장에 있는 옷이-(속담) / (4) 가뭄에 비 내려준 갯배(민담) / (5) 키 작은 인부의 울음(민담) / (6) 저승강을 지키는 노부부 산즈노한시와 산즈노가와(민담) / (7) 야만바(민담) / (8) 짐승소리 알아듣는 모자(민담) / (9) 방귀쟁이 며느리 해꼬리요매상 / (10) 코가 길어지는 텐구의 부채(민담) / (11) 야만바와 부적석 장(민담) / (2) 샷샷 쓴 돌부처(민담) / (13) 귀없는 호이치(민담)

재조사 때 설화 구연목록이 많아진 것은 ‘준비’의 영향이 크다. 들려줄 만 한 설화를 미리 가늠해서 예비해 둔 덕택에 많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어서 구연할 수 있었다. 이때 그 준비는 원래 모르던 이야기를 찾아낸 쪽이 아니라 기억 속에 잠재해 있던 설화들을 되살려낸 쪽이라 할 수 있다. 스토리를 기억하여 들려주는 방식의 구연 또한 그 설화들이 자기화가 이루어진 것임을 뒷받침하는 조건이 된다.

이주민 제보자들의 설화 구술에서 각별히 주목할 바는 이들이 구연에 임하는 자세다. 현지조사에 참여한 연구원들은 제보자들이 설화 구연상황으로 접어들고 나면 무척 적극적이고 열띤 모습으로 구술에 임했음을 이구동성으로 전하고 있다. 아래는 연구원들이 특기할 만한 사례로 보고한 것들이다.

늦은 시간도 마다하지 않고 모여서 이야기를 구연하였다. 직장 혹은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조사에 참여한 경우가 많았는데 조사를 시작할 때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였지만 점점 이야기보따리를 풀어가면서 그들의 피로도 풀리는 듯했다. 어린 아이를 둔 제보자는 아이를 재운 뒤 한밤중에 조사자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구연할 정도로 열성적이었다. (김현희 연구원)

캄보디아의 두 이주여성인 디다넬과 포유미네씨는 처음에 책을 한권 가져와서 이야기를 구술하려고 했다. 그러나 조사자의 질문에 따라 책을 덮고 디다넬씨가 자신의 목소리로 캄보디아의 ‘앞’이라는 귀신에 대해 구술하였다. 침묵하던 포유미네씨도 흥분하며 ‘앞’의 이야기에 대해 함께 구술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주고받으며 ‘앞’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술하기 시작했고, 그림까지 그리며 앞에 대한 이야기를 완성해나갔다. 디다넬씨의 말을 빌리면, 포유미네씨가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 것을 처음 봤다고 한다. 당초 매우 소극적으로 임하던 포유미네씨는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끌어나갔고, 다른 설화와 자신의 생애담까지 계속 구술하였다. (오정미 연구원)

낯선 사람에 대해 경계하는 경향이 짙고 바쁜 일과에 쫓기고 있는 이주민

들이 이렇게 설화 구술에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밤중에 일부러 조사자를 초대한다거나 평소 말이 없던 사람이 남다른 열의로 구연에 나서는 것은 단순한 호의나 의무감 등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한 태도는 설화 특유의 흡인력과 감발력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 이해관계를 떠나 자유롭고 편안한 상상의 세계를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설화다. 설화를 말하고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속에 빠져 들어가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한 연구원이 말한 대로, 구술을 진행하다 보면 오히려 생활의 피로를 푸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설화를 구술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존중받는다느 느낌을 받는다느 점도 중요한 사항이 된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준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고맙고 기쁜 일이다. 구술 대상이 사적 개인사라면 좀 거리낄 수 있겠지만, 예전부터 전해 내려온 모국의 설화인 바에야 그럼 거침이 있을 리 없다. 흥미로운 내용 속에 교훈과 감동까지 담고 있는 전통 설화는 스스로의 문화적 힘을 대변하는 흔쾌한 자랑거리가 된다. 그것이 즐거운 자기충족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다.

이야기를 하는 제보자들이 흥미와 재미를 느낀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개인적인 인상으로는 한국에 와서 서툴고 적응하기 바빴던 이주민들이, 자신들만 모국의 이야기를 조사자들에게 들려준다는 점에서 인정 욕구나 정서적 만족감 등을 충족하는 것 같았다. (이원영 연구원)

설화 조사가 끝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경우에 종종 나온 대화에서 반응을 유추해보면, 제보자들은 자국의 설화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구연자에 따라 이야기 끝에 스스로 이야기의 의미나 가치를 유추하여 덧붙이는 경우도 있었다. (김민수 연구원)

한국에서 생활하면서(특히 결혼이주여성) 자기 나라에 대한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들었

던 이야기를 떠올리고 그 당시를 떠올리면서 자연스럽게 각 나라에서의 생활담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것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는 일에 도움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김자혜 연구원)

낯선 타국에서 삶을 영위하는 이주민들에게 있어 모국의 설화를 기억하여 재현하는 과정은 자신의 존재적 기반을 이루는 삶과 문화를 추체험하면서 새롭게 의미화하는 과정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현실적 삶의 반경에서 벗어난 자기 확인과 충족의 시간이다. 이들이 정성껏 설화를 구연하는 것은 조사자를 위한 일이기에 앞서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라 할 수 있다.

주목할 사실은 그 설화 구술 과정의 상호성이다. 설화 구술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함께 있음으로써 성립되며, 상호간의 우호적 교감과 가치 생산이 이루어질 때 본연의 힘을 발휘하게 된다. 열심히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야기하는 사람이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설화 조사과정에서 조사자들은 정중히 구술을 부탁하고 그것을 귀 기울여 듣는 자리에 있었다. 그 현장에서 이주민 제보자들은 완전한 언어적·문화적 주체였다. 주변인이자 이방인으로서 문화적 타자이고 소수자라고 하는 현실적 위치가 완전한 역전을 이룬 상황이다. 그 관계적 역전을 바탕으로 문화적 소통과 확장의 신국면이 펼쳐질 수 있었다. 이어질 논의의 화두다.

4. 문학적 담화를 통한 문화적 가치의 생산

먼 과거로부터 구비전승돼 온 설화는 내용과 주제 면에서 각 나라나 민족의 풍토와 습속, 정서와 세계관 등을 응축하여 지니거니와, 전통 설화를 구연하는 과정은 문적으로 육화된 문화요소를 자연스럽게 펼쳐내는 과정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팀의 현지조사를 통해서도 각 나라의 설화에 고유한 문화적·정서적 특징이 배어 있음을 폭넓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거

의 모든 설화자료에 걸쳐 기본적 특징을 이루고 있다고 보아도 좋다. 다음은 박현숙 연구원이 현장에서 직접 조사한 설화를 대상으로 문화적 정체성이 인상적으로 드러난다고 여겨지는 요소를 간략하게 정리 보고한 것이다.

- 중국 <반고> <여와> : 중국의 창세신
- 태국 <파넛보섬> : 태국의 곡물여신
- 태국 <매낙프라카농> : 태국의 유명한 여자 귀신
- 태국 <크라스 귀신> : 태국의 무서운 귀신, 낮에는 평범한 인간, 밤에는 머리와 내장만 보이는 귀신
- 일본 <야만바> : 일본 산에 사는 거인 할머니 귀신
- 필리핀 <아수왕> : 필리핀 가옥에 사는 여자 귀신. 낮에는 평범한 인간의 형상.
- 일본 <삿갓 쓴 돌부처(가사지소)> : 일본 마을마다 놓여 있는 돌부처
- 일본 <저승강을 지키는 할머니(산즈노가와)> : 일본의 저승인식
- 캄보디아 <흰 코끼리왕의 딸> : 흰 코끼리에 대한 신성성
- 베트남 <어머니 구원한 아들의 효심> : 음력 10월 15일 베트남 부모에게 효도하는 날
- 카자흐스탄 <돔브라 줄이 두 개인 이유> : 카자흐스탄 전통악기 '돔브라' 유래
- 일본 <복숭아동자(모모타로)>, <우라시마타로> : 일본 사무라이 문화, 군국주의 의식 반영
- 태국 <도시락탑> :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의 죄짓음. <프라빠툼체디탑> : 아버지과 양육자를 살해한 왕자의 죄짓음.
- 베트남 <쩌우까우 유래> : 형의 오해를 받고 집을 나가 죽어 바위가 된 동생. 그를 찾으러 나선 형은 바위에서 죽어 찌우 나무가 되고, 남편을 찾아 나선 아내는 나무 옆에서 죽어 넝쿨이 되었다는 전설. 찌우까우는 베트남에서 귀한 손님을 대접하거나 약혼식, 결혼식에 사용하는 열매. 특히 결혼식에는 꼭 사용

각 나라의 설화에 등장하는 고유한 신령과 귀신, 동물 등은 상상력과 정서, 세계관의 복합체로서 그 존재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문화적 원체험을 환기하는 효과를 낸다. 전통 풍속 또한 마찬가지다. 설화 특유의 함축적 스토리는 그 원체험을 가장 전형적이고도 농밀한 형태로 재현할 수 있도록 한

다. 이런 이야기를 구연하는 가운데 제보자들은 자신의 문화적 저층으로 돌아가 그것을 음미하는 추체험을 하게 된다. 설화라는 문학적 언어로 발현됨으로써 그 문화적 가치요소는 구체적 형상과 함께 의미적 정향성과 깊이를 부여받게 된다.

이주민 구술 설화의 문화적 가치생산적 면모는 화자와 청자의 상호소통성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외국 출신 이주자가 한국인 정주자와 설화를 주고받는 과정은 그 자체로 새롭고 흥미로운 문화적 경험을 생성한다. 이야기내용이 낯설고 이질적이라는 사실은 거리감을 일으키는 요소인 동시에 호기심과 흥미를 자아내는 요소가 된다. 위에 제시한 여러 이야기들은 한국인 조사자들에게 낯설고 신기하며, 그리하여 강한 인상으로 각인되는 것이었다. 이야기 하나하나가 새롭고 의미있는 문화적 발견의 대상이었다. 특히 제보자들이 한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그 발견이 주는 무게감은 더욱 큰 것이었다. 그것은 그 자체로 한국 문화의 상수이며 소중한 자산이 된다.

이 지점에서 주목할 것은 이주민들이 구술하는 설화의 보편성이다. 만약 그 설화들이 민족적 특수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만 하다면, ‘저기는 저렇구나’ 하는 반응을 일으키는 정도라면 그 문화적 소통의 기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일회적인 호기심 수준의 대상으로 머물 수 있다. 하지만 이주민들이 구술하는 설화는 그 이상이다. 그것은 민족적 특성을 반영하는 한편으로 민족과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보편성을 지닌다. 그 보편성은 이주민 제보자가 구술한 설화와 한국 설화 사이의 흥미로운 일치를 통해 단면적으로 엿볼 수 있다. 다음은 박현숙 연구원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들은 각 나라 이야기의 유사성을 정리하여 보고한 것이다.

- <칠월칠석 유래> : 한국, 일본, 중국 유사
- <열두띠 이야기> : 한국, 일본, 중국 유사

- <방귀쟁이 며느리(해꼬리요매상)> : 한국, 일본 유사
- <어머니 구원한 아들의 효심>(베트남) : 개잡아 먹고 저승에서 벌 받는 어머니를 찾아가 구원한 아들의 효행 => 한국의 효행담 유사
- <이큐상의 피>(일본) : 한국 아지담과 유사. (큰스님이 물엿을 가리켜 먹으면 죽는다고 하자 이큐상이 이를 다 먹고 자신이 죽으려고 먹었다고 함. 다리(가시)를 건너지 말라고 하자 다리로 당당히 걸어가면서 다리 중앙(가시) 양 가장자리로 걸어감.)
- <취신랑>(일본) : 한국의 <두더지신랑>과 동일. 태양->구름->바람->벽->취신랑
- <고려장이야기>(일본) : 한국의 <고려장이 없어진 이유>와 유사. 일본 나가노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로, 어려운 수수께끼를 노인이 지혜로 풀어내어 고려장이 없어짐. ① 7번 구부러진 대나무에 실을 통과시켜라 ② 북을 치지 말고 소리가 나게 하라 ③ 채로 밧줄을 만들어라.

설화를 통한 문화적 소통과 확장은 단지 내용상의 신기함이나 유사성 차원을 넘어서는 문학적 함의를 지닌다는 사실을 특히 주목할 만하다. 문학적 구술언어의 정수로서 설화가 지니는 미적 깊이와 감응력은 문화적 가치 생산 및 발현 과정에 특별함을 부여한다. 표층적 지식 정보 수준을 넘어선 심층적이고 원형적인 차원의 교감과 공유가 실현된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설화들 가운데 두어 사례를 들어서 그 양상을 단면적으로 살펴본다.

필리핀 출신의 1974년생 룻파네스 제보자는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이주한 지 23년째 되는 여성이다. 그녀는 2016년 11월 9일과 12월 21일에 경기도 화성에서 본 조사팀(오정미 · 이원영 · 이승민)에 설화를 들려주었다. 화산섬 이야기와 과야빠 유래, 원숭이 유래, 마까히야(신경초) 전설, 원숭이와 거북이의 경쟁담 등 필리핀의 지역적 특징을 반영한 설화들이 많았다. 그녀는 설화 구술에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특히 두번째 조사에서 양질의 이야기를 많이 구연했다. 다음은 그녀가 12월의 2차 조사 때 구연한 <원숭이의 유래>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옛날에 신들을 도와서 옷을 만드는 일을 하는 여자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옷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신들이다. 신들한테 옷 만드는 법을 자세히 배운 여자는 처음에는 일을 잘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재미가 없어지면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꾀를 내고자 했다. 어느 날 여자는 기존의 재료 대신 짐승 가죽으로 옷을 만들면 찢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입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냈다. 여자는 신들과 상의 없이 가죽을 자르고 꿰매서 옷을 만들었다. 그 옷을 본 신들은 이런 옷을 만들려면 동물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야 하는데 왜 시키지 않는 일을 했느냐며 화를 냈다. 신은 벌로 여자가 만든 가죽옷이 몸에 꼭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게 했다. 그것이 원숭이가 생겨나게 된 유래다. 원숭이는 지금도 힘들게 일하는 대신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먹는 일만 생각하고 있다.

원숭이가 많이 서식하는 필리핀의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이야기다. 원숭이가 왜 생겨났으며 먹을 것만 탐하는지를 재미있게 설명하는 사연을 담고 있다. 신을 돕던 여자가 변해서 원숭이가 되었다는 내용이 낯설면서도 놀랍다. 여자를 낮춰 보는 관념이 담겨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자기 생각만 하고서 꾀를 내다 보면 사람 노릇을 못하게 된다고 하는 교훈을 전하는 쪽으로 볼 수 있다. 필리핀이라는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는 보편적 설득력을 지니는 인식이다.

이 설화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가죽옷’ 화소이다. 사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가죽옷이 동물한테는 생명이 걸려있는 피부라고 하는 모순적 이중성을 날카롭게 짚어내는 데 이 설화의 묘미가 있다. 사람이 편하자고 동물을 죽여서 그 껍질을 옷으로 삼는 것은 인간문명의 자기중심적인 약탈성을 대변한다. 이야기는 그것이 그릇된 것임을 신(神)의 이름으로 강조하면서, 스스로 짐승가죽과 한몸이 되어 보도록 함으로써 사람들을 각성시킨다. 자연친화적 삶의 전통에 기초한 생태적이고 공생적인 세계관이다. 이야기는 사람이 변한 원숭이가 아직도 자기 배만 불리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말하거니

와, 이는 물질문명에 젖어 편한 것만 추구하는 인류의 모습을 반성적으로 돌아보게 한다. 설화 특유의 원형적인 사유이자 인상적인 각인 효과이다. 필리핀에서 전해온 이야기이지만 그것은 한국인을 포함한 전 세계인에게 큰 흥미와 울림을 줄 만한 힘을 지니고 있다. 언어문화적 정수라고 할 만한 가치 요소다.

룻파네스가 구연한 설화 가운데 한 가지 더 소개한다. 역시 2016년 12월 21일에 구연한 <바닷물이 짠 이유>이다. 전사한 원문을 그대로 보인다(전사: 이원영 연구원).

바다가 왜 짠지. [조사자 1: 바다가 왜 차가운지?] [조사자 2: 짠지.] [조사자 1: 아 짠지? 쏘티(salty), 짠 맛이 나는지?] 네. 한국 얘기는 그런 게 있어요? [조사자 2: 예 그런 거 있어요. 한국에도.] [조사자 1: 듣고 싶어.] 똑같은 건가? [조사자 1: 똑같아도 돼요.]

옛날 옛날에는 바다 그냥 똑같애. 민물처럼 맛은 없어요. 맛은 없는데 맛은 없어요. 그냥 똑같애. 그냥 일반물이랑. 근데 한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 물에 있는데 동굴 안에 거인 살고 있었어요. 거인이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 어떻게 갈 수 있냐면 사람들은 바다로 건너서 물 건너서 배 타면서 커다란 거인을 만날 수 있으면 배타고 거기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 거인은 친절하고 착한 거인이예요. 그리고 거기에 소금이 있어요. 거인한테는 소금이 있어요. 그래서 배타고 거기 가면은 음식을 맛있게 하려고 간을 내려면 거기에 가서 거인한테 가서 소금을 달라고 하면 배타고 해야 돼요.

그 나중에 어느 날 그 바다에 너무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파도가 너무 심해졌어요. 심하고 그 동네 사람들은 배 못 타게 됐어요. 파도가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너무 세서 그 동네 사람들은 소금을 다 먹었고 음식 간을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생각하고 고민하고

“거기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거인한테 어떻게 소금을 받을 수 있을까?”

계속 고민 고민하는데 한 애가 이렇게 말했어요.

“거인한테 한번 우리 요청해보라.”고 요청하면서 그 거인이 “자기 커다란 긴 다리를 우리 마을을 위해서 다리처럼 만들라.”고 했어요. “그 긴 다리 다리처럼

만들라.”고 했어요.

“그 다리. 다리로 만들자.”

[조사자 1: 그 거인의 다리를 다리로 만들어라.] 아 그래서 바다 건널 수 있게 그렇게 요청했어요. 한 애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른들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야지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다리에서 걸어갈 수 있어요. 원시적이야.

그 친절한 착한 거인은 허락했어요.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푸대? 소금 담는 거 뭐라고 하는 거죠? [조사자 2: 보따리?] 보따리 말고 조금 더 큰거. [조사자 2: 자루?] 자루. 자루 다 들고 가면서 거인 다리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인제 도착했는데 거인 땅에 도착했는데 한 사람마다 한 자루 소금을 갖고 자기 마을에 돌아가는 건데 근데 갑자기 그 큰 다리, 거인다리에 어디 쪽이었냐 하면은 약간 조금 언덕이에요. 그 언덕은 개미. 개미 많은 언덕을 거기서 한쪽 다리를 거기에서 인제 넣었어요. 모르게 그런 건. 근데 이제는 그 다리가 개미들은 큰 개미 있잖아요. 빨간 개미. 개미들 계속 물기 시작했어요. 물고 물고 그런데 거인이

“아 이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자기가 참고 참고 계속 참고 있다가 근데 안 되겠어서 동네 사람들한테 “빨리 빨리 하시라”고, “빨리 건너셔야 되는데 자기가 다리를 빼야 된다.”고. 자기가 “다리를 너무 아프고 개미가 계속 물고 있으니 참을 수 없다.”고.

그렇게 하는데 엄청 많이 참았는데 그래도 안 되겠어요. 너무 간지럽거나 그런 거 하니까 아프거나 그래서 갑자기 거인 다리를 자기가 인제 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떨어졌어요. 강에. 그 바다에서 다 떨어졌어요.

거인은 사람들만 구했어요. 사람들만 구하고 자기 손으로 다 구했지만 떨어지는 소금들은 다 못 구했어요. 물밑으로 다 빠졌어요. [조사자 1: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바닷물이 짠 맛이 되었어요.

이야기에 의하면 사람들이 거인의 다리 위로 나르던 소금이 떨어져서 바닷물이 짜게 되었다고 한다. 한국 설화 <바닷물이 짠 이유>와 스토리가 꽤 다르지만 바닷물이 짜게 된 이유가 사람들의 행태와 관련된다고 말하는 점

은 공통적이다. 인간의 자기중심적 욕망이라고 할 만한 행태다.

위 설화에서 흥미를 끄는 것은 거인의 존재다. 사람들에게 소금을 전해주고 여러 도움을 주는 거인은 신령을 연상시킨다. 동굴로 표상되는 자연(대지)에 깃든 신령이다. 사람들은 바다를 건너는 수고를 덜기 위해 거인 신령의 다리[脚]을 다리[橋]로 이용하는데 그것은 생각만큼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개미로 표상되는 작은 힘에 의해 허무하게 와해될 수 있는 대상이었다. 거인이 개미의 공격을 못 견뎠다는 발상이 무척 흥미롭거니와, 이는 실제 현상의 반영이기도 하다. 소나 코끼리 같은 큰 동물한테는 개미나 모기, 파리 등이 난적이니 말이다. 어쨌든 그러한 역전적 관계 설정을 통해 이 설화는 크고 작음을 떠난 세상 만유의 존재성을 효과적으로 부각한다. 이와 함께 이 설화는 거인으로 상징되는 크고 신령한 힘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삶의 방식에 깃든 함정을 잘 보여준다. 신령의 자리가 있고 사람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 법이다. 이야기 속의 사람들이 위기와 재난을 맞은 것은 자신의 수고와 괴로움을 덜고 어떻게든 신령에 의존하고자 한 데 따른 응보라 할 수 있다. 죽지 않고 살아났지만 바닷물이 짜서 먹을 수 없게 되었으니 영속적인 재난을 불러온 상황이다. 그 바다와 더불어 큰 수고와 고난을 감당하며 살게 된 것은 일종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볼 만하다. 사람들은 이 설화를 전승하면서 보다 주체적이고 진취적으로 삶의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되새겨 왔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이 설화는 필리핀 사람들의 경험과 사유를 오롯이 응축한 것이면서 나라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두루 통할 수 있는 깊은 재미와 깨달음을 함유하고 있다. 하나의 빛나는 문화적 담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한국어로 발화되어 현장적으로 실현된다는 것은 한국어의 문화적 가치요소가 그만큼 확장되고 심화된다는 뜻이 된다. 그것은 세계화시대 한국어문학이 펼쳐낼 수 있는 하나의 첨단적 문화양식이자 텍스트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빛나는 담화’가 한국사회 안에 무궁무진하게 잠복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

것을 오롯이 이끌어내서 발현시킬 때 한국어문화는 의미 있는 발전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5. 다문화 문식성 실현의 장으로서의 설화 구술

세계화시대 다문화시대를 맞이하여 다문화 문식성이 언어문화적 발전의 화두가 되고 있음을 서두에서 말한 바 있다. 관건은 그 다문화 문식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확장하고 심화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의 설화 구술 과정이 이를 위한 자연스럽고도 효과적인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필자가 최근 수행한 구술 조사 사례를 통해 이를 단면적으로 짚어본다.

2017년 5월 1일에 본 조사팀은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카페에서 일본인 결혼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설화 조사를 수행했다(조사자: 신동훈·조홍윤·황승업). 성명은 노마치 유카로 1974년생 여성이다.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지 6년차의 가정주부다. 일본의 교회에서 한국인을 만나서 사귀는 것이 인연이 되어 한국에 왔다고 한다. 기회 닿는 대로 한국인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고 일본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중언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

노마치 유카 제보자와 본 조사팀의 만남은 이 날이 처음이 아니었다. 2017년 1월 17일에 조홍윤·황승업 연구원이 1차 조사를 수행한 상태로, 이번이 두번째 만남이었다. 1차조사 당시 제보자는 신화와 민담 등을 꽤 구연했으나 내용은 거칠고 소략한 쪽이었다. 일본의 속신어들을 소개하고 해설하는 것이 더 주된 구연내용이었다. 그리하여 본 조사팀은 새로운 설화 구술에 그리 큰 기대를 걸지 않았던 터였는데 만나보니 예상과 달랐다. 제보자는 본국에서 들었던 설화들에 대하여 서사적 맥락을 갈무리해온 상태에서 조리 있고

흡인력 있게 이야기를 구연했다. 구술 태도는 자발적이면서도 적극적이었다. 설화 줄거리를 메모해온 쪽지를 간간히 확인하면서 밝은 표정으로 즐겁고 진지하게 구연을 이어나갔다. 조사자들과의 상호 소통에도 적극적이었다.

이날 노마치 유카 씨가 들려준 이야기 목록은 아래와 같다.

1. 소원을 들어주는 오지조사마 [민속]
2.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준 오지조사마
3. 나무로 만든 호토케사마 덕분에 부자가 된 사람
4. 금덩이를 몰라본 솟구이 총각의 성공
5. 꿈대로 했다가 다리에서 센닌(선인)을 만난 총각
6. 치수를 해서 사람들을 도와준 교우지 스님
7. 시치후쿠진(칠복신)을 재워주고 부자가 된 사람
8. 일본의 칠복신 (상인의 신 에비스와 머리를 좋게 하는 신 다이코쿠) [민속]
9. 복고양이 마네키네코의 유래
10. 민보가미(빈곤신)로 변해서 찾아온 후쿠노가미(복의 신)
11. 민보가미(빈곤신)가 집을 떠나며 두고 간 선물
12. 우물에 빠진 천둥신 카미나리사마를 꺼내준 사람들
13. 오니와 관련된 일본의 풍습 (귀문과 나마하계) [민속]
14. 산에 사는 무서운 할머니 야만바와 세 개의 부적
15. 흑 달린 영감과 도깨비(오니)
16. 죽은 나무에 벚꽃이 피어나게 한 하나사카지이상
17. 일본의 추석 풍습 - 수신에게 올리는 음식과 조상신을 위한 춤 [풍속]
18. 오니를 물리치고 보물 망치를 얻은 꼬맹이 잇스보시¹²⁾

이날 구연의 주된 열쇳말은 ‘신령’과 ‘이물’이었다. 일본의 이야기 속에 등

12) 총 18편의 이야기 가운데 1번과 8번, 13번, 17번은 서사적 스토리 없이 민속과 문화를 설명한 것으로 설화라 보기 어려우며, 이를 제외한 14편의 이야기가 설화적 성격을 띤 것들이었다. 6번과 8번, 12번 이야기는 전설에 속하며, 그 밖의 다른 이야기들은 민담에 해당한다. 서로 성격을 달리하는 담화들이 이렇게 어울리는 것은 구술현장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장해서 사람들과 부대끼는 여러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졌다. 내용이 그리 길고 다채롭지는 않으나 필요한 서사요소를 착실히 갖춘 재미 있고 신기한 것들이었다.

이 날의 설화 구술 상황은 그 자체로 다문화 문식성의 확장과 심화 과정 이었다고 할 만하다. 제보자가 구연한 설화들은 자국의 삶과 문화가 서사적으로 응축된 정수인 동시에 보편적인 교훈과 감동으로 외국인 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빛나는 언어였다. 2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조사자들은 밀도 높은 문학적 경험과 함께 지식과 정서 양 측면에서 다문화적 확장을 이룰 수 있었다. 이는 단지 조사자들만의 일이 아니었다. 설화를 구연한 제보자 또한 조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다문화적 이해와 확장을 이룬 측면이 있다. 요컨대 설화 구술을 통한 다문화 문식성 발현은 입체적이고 쌍방향적인 것이었다.

설화 구술에서 문화적 문식성이 구현되는 양상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국면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언어문화적 지식 정보의 확장이 효과적이고 밀도 있게 이루어진다.

앞에 제시한 구연설화 목록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날의 설화구연에서는 오지조사마와 호토케사마, 시치후쿠진과 후쿠노카미, 민보가미, 카미나리사마 등 일본의 여러 신령들이 등장했다. 한국인들로서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낯선 대상들이다. 설화적 주인공인 오니나 야만바, 잇스보시 등은 상대적으로 익숙하지만 그 또한 구체적인 형상과 특성에 얽힌 맥락은 낯설고 불투명한 쪽이다. 이런 낯선 존재들에 대하여 설화는 특유의 문학적 생동성과 흡인력으로 그들을 자연스레 마음속으로 들어와 앉게 했다.

(1) 일본의 칠복신 (상인의 신 에비스와 머리를 좋게 하는 신 다이코쿠)

일본사람들은 칠복신을 모시는데 그 중 유명한 것이 에비스이다. 상인들이 ‘에비스상’이라 하여 이를 귀하게 여기며, 금이나 좋은 것들로 장식한 에비스를

사다가 가게를 장식하곤 한다. 뽕이 복스럽게 볼록 나오고 모자를 썼으며 얼굴은 상냥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다. 일본에서는 아부하는 일을 ‘깨를 으깬다’고 하는데 그런 이미지다. 칠복신 가운데는 다이코쿠 사마도 있는데 그를 모시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했던 것 같다. 오사카의 타위에 다이코쿠가 있는데 대학생들이 가서 만지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해서 다투어 만져서 맨들맨들하다. 일본에는 칠복신을 모시는 신사들이 많이 있다.

(2) 민보가미(빈곤신)로 변해서 찾아온 후쿠노가미(복의 신)

일본의 신에 민보가미가 있는데, 이 신이 집 안에 있으면 가난해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신을 꺼린다. 어떤 마을 뒷산에 민보가미가 살았는데 사람들은 그가 마을에 내려오면 절대 집에 들이면 안 된다고 했다. 어느 날 엄청 비가 내리는 날 딱 봐도 민보가미로 보이는 사람이 마을에 나타나서 자기를 재워 달라고 했다. 사람들이 다 싫다고 거절하는데 어떤 착한 사람이 그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집에 들어서 밥을 대접하고 재워주었다. 그러자 그는 다음날이 되어도 집을 나가지 않고 계속 그 집에 머물렀다. 그 사람이 마음이 착해서 계속 밥을 주다 보니 식량이 떨어져 마지막 한 알까지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자 민보가미는 그 집을 떠나면서 주인한테 어떤 나무 맞게 오지조사마가 있으니 거기를 가보라고 했다. 그 사람이 저녁에 가서 보니까 흰 말이 지나가는데 그 뒤에 보따리가 떨어져 있었다. 그 보따리 안에는 보물이 가득 들어있어서 그 사람은 부자로 잘 살게 되었다. 그 사람은 사실은 민보가미가 아니라 복의 신 후쿠노가미였던 것이었다.

(3) 민보가미(빈곤신)가 집을 떠나며 두고 간 선물

어느 집에 빈곤신 민보가미가 들어와 앉아 있어서 그 집은 아무리 일을 해도 좀처럼 살림이 나아지지 않았다. 마침 설날이 되었는데 아무것도 준비를 못하고 있자 민보가미가 조리(오끼미야게)를 두 개 주면서 그거라도 갖다가 팔라고 했다. 그 사람이 그것을 팔러 나갔으나 아무도 사가는 사람이 없었다. 할 수 없이 돌아오려고 하는데 어떤 숲 장수 하나가 숲을 하나도 못 팔고 돌아가려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물건을 하나도 못 팔고 들어가면 속상하니까 서로 교환하면서 조리와 숲을 맞바꿨다. 그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숲으로 불을 피우자 차갑던 집이 아주 따뜻해졌다. 그러자 민보가미가 뜨거워서 싫다면서 그 집을 떠나면서

조리를 하나 주었다. 민보가미가 떠난 뒤에 그 조리를 사용했더니 금을 때마다 금이 나왔다.

이들 이야기 속에 나오는 칠복신 에비스 및 다이코쿠와 빈곤신 민보가미는 일본인들한테는 익숙한 것이겠지만 한국인한테는 그렇지 않다. 이름이 낯설고 형상과 성격도 짐작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위 이야기들은 그 새로운 언어문화적 지식정보를 우리한테 잘 전달해 준다. 일본에 신령의 종류가 꽤 많고 흥미로운 신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 장사를 잘 되게 해주는 신 정도는 흔히 생각할 수 있지만 머리를 좋게 하는 신이나 집을 가난하게 하는 신도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관심대상이 된다. 일본인들이 가작각색의 신령과 가까이하는 문화를 지니고 있음을 단적으로 깨닫게 되는 장면이다. 지식정보의 다문화적 확장이다.

주목할 바는 특별히 ‘설화’에서 문화적 확장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위의 자료들을 비교하면 민속 설명에 해당하는 자료 (1)과 설화적 서사를 갖추고 있는 자료 (2)·(3)에서 문화적 문식성이 발현되는 양상과 수준이 같지 않다. 자료 (1)의 경우 칠복신 가운데 에비스와 다이코쿠라는 신의 존재와 함께 그 형상과 직능에 대한 ‘정보’를 전해줄 따름이다. 이에 비하면 설화적으로 서사화된 민보가미에 얹힌 문화적 간접체험은 훨씬 극적이고 역동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민보가미가 들어와 있으면 집이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표면적인 인식을 넘어서서, 두 개의 설화적 담화는 사람들이 꺼리는 신령이라도 그를 대하는 방식에 따라 상황의 역전이 가능하다고 하는 인식을 현시한다.

자료 (3)을 보면 주인공이 시장에서 가져온 솥으로 불을 피우자 빈곤신이 떠났다고 하는데, 그 온기는 실상 주인공의 심성과 삶의 방식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빈곤신도 당할 수 없으며 결국 때가 되면 인생역전의 성공이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신념적

인식이 그 안에 깃들여 있다. 이러한 인식은 자료 (2)에도 함축돼 있다. 이야기는 주인공의 집에 찾아온 것이 빈곤신인 민보가미가 아니라 복의 신인 후코노카미였다고 말하지만, 서사적 맥락으로 보면 주인공이 특유의 인정과 온기로써 빈곤신을 복의 신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란 결국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는 신념적 인식이 그 안에 육화되어 있다. 설화라는 문학적 담화를 통해 얻게 되는 구조화된 세계관적 의미다. 이러한 발견은 ‘민보가미’라는 언어적·문화적 요소를, 그리고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풍경을 내면에 되새기도록 한다. 다문화 문식성의 확장이 효과적이면서도 밀도 있게 이루어지는 장면이다.

둘째, 문화의 이면적 맥락에 대한 통찰을 통해 문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깊은 이해로 나아갈 수 있다.

사람들은 자기 문화와 다른 타국의 문화에 대해 그 표면적인 모습만 보고 편견을 가지곤 하거니와, 이러한 선입견은 열린 문화적 소통과 확장에 큰 걸림돌이 된다. 이에 대하여 설화는 그 문화의 이면적 맥락에 대한 새롭고 깊은 통찰의 길을 열어주는 힘을 지니고 있다. 많은 정보나 복잡한 논리적 설명 없이 응축된 미적 언어를 통해 쉽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질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 설화의 놀라운 점이다.

조금 전에 살핀 빈곤신 민보가미에 대한 설화만 하더라도, 편견을 넘어선 문화인식의 재맥락화라는 기능을 잘 구현하고 있다. 일본 사람들이 수많은 신령을 귀하게 모신다는 사실은 세간에 일반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정보다. 신을 모시는 정성도 좀 유별나다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식은 일본인들이 신에 대한 의존성 내지 종속성이 강하다고 하는 인상을 갖게 한다. 필자만 하더라도 이와 비슷한 선입견을 지니고 있었던 쪽이다. 이에 대하여 민보가미에 대한 설화들은 그것이 신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이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일이며 신은

그에 대한 응답을 줄 따름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면, 이 설화들은 신(神)이 사람들 내면의 표상이며 사람 안에 있는 힘임을 말해준다고 볼 수도 있다. 자료 (3)에서 빈곤신이 복의 신으로 탈바꿈한 것은 주인공 안에 있는 복된 힘이 극적으로 발현된 상황이거나, 이 설화에 그려진 신에 대한 정성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정성이라고 해석할 만하다. ‘일본 사람들이 신에 대한 의존성이 크다’라는 식의 선입견을 깨면서 이면의 문화적 맥락을 보다 개방적이고 객관적인 형태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요소다. 문화적 문식성의 질적 심화가 이루어지는 장면이다.

개인적으로 이 날의 설화 구술 가운데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온 것은 벚꽃에 관한 내용이었다. 일본인이 벚꽃을 좋아하고 벚꽃놀이에 널리 나선다는 것은 대략 알고 있었으나 거기 얹힌 문화적 맥락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해본 바 없었던 터였다. 그냥 꽃이 예쁘니까 보러 가서 사진을 찍고 즐기는 것 이려니 하는 정도였다. 이에 대하여 제보자가 구연한 다음 설화는 그 문화적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들여다보도록 해주었다.

(4) 죽은 나무에 벚꽃이 피어나게 한 하나사카지이상

벚꽃 피는 시절에 어울리는 이야기가 있다. 꽃을 피우는 할아버지 하나사카지이상에 관한 이야기이다.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면서 개를 키우면서 예뻐했는데 어느 날 그 개가 땅 한 곳을 가리키며 거기 무엇이 있다는 듯 왕왕 짖었다. 할아버지가 거기를 파보니까 금이 나와서 부자가 되었다. 그 말을 들은 이웃집 노인이 개를 빌려달라면서 억지로 끌고 갔다. 개가 짖지 않자 노인은 개를 때려서 짖게 했다. 하지만 그곳을 파자 나온 것은 금이 아닌 쓰레기였다. 화가 난 노인은 막대기로 개를 때렸는데 개가 잘못 맞아서 죽고 말았다.

주인 할아버지가 죽은 개를 데려와서 태운 다음 무덤을 만들어주었다. 그러자 무덤에서 나무가 하나 자라났다. 나무가 크게 자랐을 때 꿈에 개가 나타나서 그 나무로 절구통을 만들라고 했다. 할아버지가 그 말대로 절구통을 만들었는데 절구질을 하자 안에서 금이 나왔다. 그러자 이웃집 노인이 그 절구통을 가져가

서 절구질을 했는데 이번에도 나온 것은 금이 아니라 쓰레기였다. 그는 화가 나서 절구를 불에 넣어서 태워버렸다.

주인 할아버지가 슬퍼하면서 재를 챙겨서 돌아올 때였다. 바람에 재가 날려서 죽은 나무에 떨어지자 나무에서 화사한 꽃이 피어났다. 벚꽃이었다. 신기하게 여긴 할아버지는 죽은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재를 뿌리자 나무마다 꽃이 피어났다. 그 모습을 본 장군이 대단하다면서 할아버지한테 상을 주었다. 이때 이웃집 노인이 다시 재를 뺏어가서 나무에 뿌렸는데 꽃은 안 피고 재가 장군 눈에 들어가서 벌을 받았다.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다 산에 가서 신이 된다고 믿었다. 그 신이 마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그때가 바로 봄이다. 사람들은 벚꽃을 신성한 나무로 여겨서 돌아가신 조상들과 함께 한다는 뜻으로 그 나무 밑에 돛자리를 깔고 꽃구경을 하게 되었다. 벚꽃놀이가 시작된 데는 이런 유래가 있다.

보듯이 서사적 짜임새가 잘 갖추어진 훌륭한 설화다. 모방담의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진짜 대 가짜’ 형태의 모방서사가 세 번에 걸쳐 중첩된다. 강아지와 나무, 꽃으로 이어지는 세 개의 삽화는 하나의 공통적 의미요소를 지니고 있으니, ‘생명’이 그것이다. 개를 사랑하는 일이나 나무를 소중히 여기는 일, 죽은 나무에 꽃을 피우는 일 등은 모두 생명의 존중과 생명력 발현이라는 맥락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요컨대 이야기 속의 할아버지는 세상에 기쁜 생명을 존중하고 그 신성한 힘에 접속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죽은 나무에 꽃을 피우는 대목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삶의 신성한 기적은 아주 극적으로 발현된다.

그런데 가는 길에 바람이 불어서 그제 재가 날아가는데, 그 주변에 죽은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 나무가 다시 살아나서 꽃 피는 거예요. 그제 벚꽃이었던 거죠. [조사자 일동 : 아]

‘어, 신기하다!’ 해서 “죽은 나무에 꽃을 피웁시다!” 하고 막 신나게 이렇게 피우고 다녀요. 그랬더니 사람들 막 보러 오잖아요.

“어, 죽었는데 다시 피네!”¹³⁾

조사자들이 동시에 탄성을 발할 정도로 극적인 장면이었다. 설화는 그 나무가 ‘죽은 나무’였다고 말하거니와, 거친 껍질로 둘러싸인 채 겨울을 지낸 나무에서 화사한 꽃이 피어나는 일은 그 자체로 ‘죽은 나무가 꽃을 피우는 기적’이라고 할 만하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한 저 할아버지는 생명의 존재로서의 인간인 동시에 신(神)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은 죽어 사라지지 않고 순환하는 법이니, 개가 나무로 거듭 나는 것이 그러하며 마른 가지에 꽃이 피어나는 것이 또한 그러하다. 죽은 조상이 꽃이 되어 찾아오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 꽃을 찾아가 바라보면서 교감하는 일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울타리를 훌쩍 열어젖히고 세상의 본원적 생명력과 교감하는 일이 된다.

이렇게 이 설화는 ‘벚꽃놀이’를 우주에 깃든 본원적 생명력과 교감하는 하나의 신성한 의례로 격상시킨다. 아니, 격상이 아니다. 그것이 본래의 문화적 의미였는데 우리가 그 껍데기만을 보면서 봄 풍경을 소비해 왔던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 설화가 마무리되었을 때 충격에 가까운 감동이 일어났다. 원형적 설화가 전해주는 감동이며, 인간과 문화의 깊이가 전해주는 감동이다. 일본이라는 타문화에 대한 문식성의 질적 교정과 확장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셋째, 설화 구술은 상호소통과 교감을 통한 문화의 쌍방향 이해와 확장을 효과적으로 실현한다.

문화적 가치요소를 함축한 언어는 설화만이 아니다. 시와 소설, 노래, 영화와 드라마 등 수많은 문학예술 양식에 문화적 가치가 내포되어 있으며 그것은 문화적 문식성 발현의 좋은 통로가 된다. 예컨대 우리는 외국 소설이나 영화 등을 보면서 다문화적 이해를 확장하고 심화할 수 있다. 하지만 구술문화로서의 설화에는 이들 문학예술 양식과 다른 특별한 점이 있으니, 현장에서의 상호적 소통이 그것이다. 서로 얼굴을 맞대고 눈을 마주보면서 이루어내는 소통이 발휘하는 힘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특히 서로 출신국이 다르고 살아온 내력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현장적 소통은 더욱 특

13) 설화 본문 전사 : 황승업 연구원. 이하 같음.

별한 면이 있다. 상호간에 오가는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두루 문화요소로 기능한다고 해도 좋을 정도다.

설화 구술은 특정 화자가 내용을 구연하고 청자가 그것을 듣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구술현장에서 청자는 단순한 객체가 아니다. 그는 화자와 깊은 관련을 맺는 또 하나의 소통 주체로 기능한다. 청자의 눈빛과 표정, 동작 하나하나가 화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청자가 모종의 언어적 발화를 하는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그것은 그 자체로 문학적 담화와 소통의 실체를 구성한다. 구술현장에서 청자는 어떤 식으로든 발화에 참여하면서 화자와 상호작용하기 마련이거니와, 즐거운 상상적 담화로서의 설화 구술 현장에서는 그러한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고도 우호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2017년 5월 1일 노마치 유카 제보자의 설화 구술 현장도 그러한 상호적 소통성이 잘 살아난 경우였다. 설화를 녹음하여 자료화하는 것이 만남의 목적인만큼 제보자가 발화의 기본 주체가 되는 상황이었지만, 구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상호간 소통이 이루어졌다.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대답 외에 설화내용에 대한 감상과 토론, 설화를 둘러싼 문화 차이에 대한 대화, 구연된 설화와 비슷한 또 다른 설화에 대한 대화 등이 자연스럽게 오갔다. 다음은 그 중 간단한 장면을 옮긴 것이다.

(5) “일본의 칠복신” 구연 과정에서

그러니까 상인들이 이미지가 그래요, 막 이렇게 이거 “깨를 이렇게 으깬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뜻이 없어요? [조홍윤 : 으끼, 으깬다고 해서?] 아, 깨, 깨를 으개는 뭔가 다른 뜻이 없어요? 내포되는 뜻. [조홍윤 : 아, 그런 다른 의미는 모르겠는데요.] (웃음) 아부! [조홍윤 : 아부, 아! 우리는 “손바닥을 비빈다.”라고.] (웃음) 예, 고마(ごま)라고 하는데, 막 이렇게 깨를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손도 막 이렇게 하면서. (웃음)

(6) “금덩이를 몰라본 숫구이 총각의 성공” 구연이 일단락된 장면에서

[신동훈 : 한국에도 솥구이총각 이야기 되게 많아요. 솥구이 굽는 그 총각이 결혼을 해서 알고 봤더니, 여기 그 솥구이총각한테 금이 많이 있었다.] 오, 똑같네요. 예. [조홍윤 : 신기하네요.] 음. 제가 어딘가에서, 아 그 규슈, 규슈로 갔을 때, 규슈 아시죠? 거기 갔을 때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전쟁 때 와가지고 솥을 굽는 일을 많이 했었다는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산에서 그 일을 많이 했겠죠.

삼화적인 간단한 장면이지만, 언어문화적 차이 내지 공통성을 확인하는 즐거운 과정이었다. ‘깨를 으깬다’와 ‘손바닥을 비빈다’라고 하는 관용적 표현 사이의 차이가 서로에게 호기심과 재미를 일으켰고, 한국과 일본에 모두 솥구이 총각 얘기가 많고 그 이야기가 금과 관련된다고 하는 공통점에 함께 관심을 나타낸 상황이다. 경계를 넘어선 문화적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순간이다. 솥구이 총각 이야기는 그것이 모종의 역사적 배경을 지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으로까지 이어졌다. 여건이 되어 그에 대한 대화를 더 이어갔다면 소통은 더 깊고 넓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다음은 이야기를 둘러싼 문화적 소통이 실제로 더 깊고 넓은 수준으로 이어져간 장면이다.

(7) “민보가미로 변해서 찾아온 후쿠노가미” 구연 마무리 장면에서

그런데 사실은 그 민보가미가 아니라, 복의 신이었다. 후쿠노가미. [조홍윤 : 후쿠노가미.] 예, 예. 그러니까 뭐 그것도 하나의 가르침이겠지만, ‘여행자나 가난한 사람한테 잘 해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였고요. [조홍윤 : 그리고 ‘가난한 신이라도 잘 끝까지 이렇게 힘들어 하지 않고, 잘 끝까지 지키고 모시면은 복의 신으로 변한다.’ 뭐 그런 얘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최근에 그 디즈니 영화를 봤는데. 그 야수와 미녀가 있잖아요. 야수와 미녀도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할머니가 이렇게 나오는데, 함부로 대했다고 벌을 받는 거잖아요. “나는 그게 아니었는데.” 하면서. 그 서양도 비슷한 얘기가 있는 것 같네요. (웃음)

(8) “산에 사는 무서운 할머니 야만바와 세 개의 부적” 마무리 장면에서

[신동훈 : 이 이야기 아주 재밌는데요? 저기 헨젤 그레텔 이야기하고도 좀 비슷하고.] 아 그래요? [신동훈 : 헨젤과 그레텔.] 아, 헨젤 그레텔. [신동훈 : 거기서 마녀가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거기도 할머니가. [신동훈 : 여우누이하고도 비슷하고, 한국에도 그런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기둥에 묶어놨다고 그랬는데, 한국에 방에다가 똥을 놔 놓고서 막, 창문을 열고 도망가니까, 물어보니 똥이 대신 대답을 했다.] (웃음) [조홍윤 : 분신이죠, 분신.] 진짜네요. 재밌네요. [신동훈 : 네, 자기 분신이라서.] 왜요? 그런 힘이 있어요? [신동훈 : 어,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나온 거니깐, 아직도 딱딱하니까 생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빠 안에 있어?” 그러면 “어, 나 여겼어.” 그랬다고.] (웃음) 어, 재밌네요. 아니 그 한국에서 도둑이, 도둑이 똥을 싸고 가야지 안 잡힌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조홍윤 : 어디 흠친 다음에 똥 싸고 도망가야 안 잡힌다고요?] 네, 네. [신동훈 : 한국에?] [조홍윤 : 그런 얘기가 있나요?] 네, 네. [신동훈 : 한국에 와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네. [신동훈 : 오, 저희보다 더 잘 아시네요.] (웃음) 그러니까 똥, 똥을 누고 간다고. [조홍윤 : ‘대신 잡혀라’ 그러고.] (웃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음, 그것 연결이 되는데요? 아 저 그거 유명한 얘긴 줄 알았는데. [조홍윤 : 저희가 도둑, 도둑들의 방식을 몰라서.] (웃음)

한 편의 설화 구연이 마무리되는 장면에서 이야기와 관련한 확장적 소통이 이루어진 장면이다. (7)에서 민보가미 설화를 구연한 제보자가 거기 담긴 교훈을 풀이하는 장면에서 조사자가 그게 빈곤신이 복의 신으로 변한 것일 수 있다고 하자 화자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하고 동의하면서 그것이 <미녀와 야수>의 서사와도 통하는 것 같다는 쪽으로 말을 이어갔다. 상호소통을 통해서 설화에 담긴 주제의식의 재맥락화되는 장면이며, 문학적 언어에 담긴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심화 확장되는 장면이다.

(8)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다. 아이들을 노리는 산속 할머니 야만바에 얹힌 서사는 한편으로 <헨젤과 그레텔>의 마녀에 얹힌 서사와 통하고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여우누이>와 통하는 것이었는바, 이와 관련한 소통이 자연스럽게 흥미롭게 이루어졌다. 화자는 “그렇죠, 그렇죠”, “진짜네요. 재밌네

요” 하면서 큰 흥미를 나타냈거니와 화자 자신 다문화적 문식성을 넓혀가는 장면에도 해당한다. 상호간 대화는 제보자가 “한국에서는 도둑이 방에 똥을 누고 간다”고 하는, 조사자들이 잘 모르는 내용까지 꺼냄으로써 조사자들로 하여금 자국문화를 되짚어보게 하는 장면으로까지 이어졌다. 설화를 둘러싼 언어적 소통은 화자와 청자 상호간의 다문화적 이해를 넘어서 화자와 청자가 각기 자문화를 새롭게 되짚어보는 효과까지 내거니와 그 문화체험적 효과는 그야말로 입체적이며 총체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호소통적 문식성 확장은 물론 이날 조사에서만 나타난 바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 조사 과정에서 폭넓게 펼쳐지는 상황이다. 이주민 제보자가 구술한 설화나 속담 등이 한국 것과 유사할 때 조사자들이 그 사실을 말하고 내용을 소개하면 제보자들은 큰 놀라움과 함께 관심을 나타냈으며, 무척 신기해하면서 거듭 그 내용을 되새기고 열심히 배워서 익혀가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일이 다문화적 소통과 확장을 위한 유효한 통로로 기능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설화 간에 다양한 층위의 유사성이 있다는 사실은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거듭 확인된 사항이다. 하지만 그것은 대개 연구실에서 텍스트를 건주는 가운데 발견한 것들이다. 설화 구술 현장에서 이야기의 유사성과 접점을 발견하고 상호적 교감을 이루는 일은 이와 다른 차원의 의의를 지닌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구술 현장은 그 자체로 의미심장한 문화의 장이 된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며 쌍방적이고 포용적인 문화적 소통과 확장장의 장이다.

넷째, 설화 구술을 통한 소통은 자연스럽고 깊은 인간적 교감과 융화를 가능케 한다.

다문화 문식성은 단지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잘 이해하여 효과적 소통을 이루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궁극의 도달점은 민족적·문화적

경계를 넘어선 인간적 교감을 통한 차별과 불평등의 극복에 있다. 윤여탁의 표현을 빌면 다문화 문식성은 “다문화 사회에서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¹⁴⁾이며, “사회적 불평등에 대항하는 비판적 실천”을 행하고 “사회적 정의와 효과적인 민주주의를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¹⁵⁾ 이러한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의미의 다문화 문식성은 설화를 말하고 듣는 과정에서 가장 가깝고도 효과적인 방식으로 발현된다. 만국공통의 언어로서 설화를 통해 서로 삶을 나누고 이해하는 과정은 그 자체 서로 똑같이 소중한 존재로서 인간적인 교감과 확장을 이루는 과정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언어문화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설화를 말하고 듣는 순간 모두는 똑 같은 사람일 따름이다. 그것이 문화적 타자로서의 소외감과 이방인 의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주민들한테 더욱 뜻깊은 경험이 된다는 데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2017년 5월 1일 설화 구술현장에서 노마치 유카 제보자와 세 명의 조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소통도 이와 같은 것이었다. 전에 조사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들려준 경험이 있는 제보자는 기꺼이 더 좋은 구술을 펼쳐낼 준비를 갖춘 상태였고 준비했던 것 이상으로 훌륭한 이야기판을 펼쳐냈다. 조사자들의 적극적인 반응과 소통은 구술에 더 큰 생명력을 불어넣는 동력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이야기를 하는 내내 즐겁고 행복한 표정을 했으며 표정에 빛이 났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듣는 조사자들도 고맙고 즐거웠다. 구술이 일단락된 뒤 필자가 좋은 구술에 고마움을 나타내면서 감동적이었다고 말하자 노마치 유카씨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서 자기가 더 고맙고 행복했다고 사례했다. 그것은 서로가 함께 행복한 소통의 시간이었다. 그날의 만남

14) 윤여탁, 「다문화교육에서 문학교육의 지향과 다문화 교사 교육」, 『다문화사회연구』 6권 1호,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2013, 65쪽.

15) 윤여탁, 「다문화 사회의 문식성 신장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전략—문학교육의 관점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94, 한국국어교육학회, 2013, 16쪽.

과 소통은 서로의 마음속에 길이 남을 것이며, 또 다른 소중하고 행복한 만남으로 이어질 것이다.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필자는 노마치 유카 씨한테 한국인들한테 일본어를 가르칠 때에 이런 설화들을 들려주면 좋을 거라고 말해주었다. 그렇지 않아도 가끔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반응이 그리 신통치 않다는 답이 돌아왔다. 재를 뿌리자 죽은 나무에 꽃이 피어났다는 얘기를 해주자 아이들이 “에이, 말도 안돼!” 하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본 필자는 아이들이 이야기를 좋아하면서도 괜히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 이야기에 담긴 가치는 어떻게든 아이들 안에 새겨질 것이니 거리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날의 만남을 계기로, 노마치 유카 씨가 더 큰 확신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에게 설화를 구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를 통해 한국의 언어문화가 그만큼 더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 되며 한국사회의 다문화 문식성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 그렇게 한국의 언어문화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6. 맺음 : 이야기로 여는 미래 언어문화

다문화 설화 구술조사에서 확인한 바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국어문학으로서 이주민 설화 구술이 갖는 의의를 살펴보았다. 그 결론은 서로 출신국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오랜 전통의 문화적 자산이자 만국 공통의 미적 언어로서의 설화를 말하고 듣는 일이 다문화 문식성을 발현하는 최고의 장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펼쳐지는 민족 대이동과 재구성이 뜨거운 시대적 현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것은 긴장과 갈등과 혼란이라는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를 둘러싼 혼란과 트럼프 정권의 반이민 행정

명령을 둘러싼 논란은 그 문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민족 이동과 이질적 문화의 만남은 문화의 발전적 재창조를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한다. 서로 다른 문화가 부딪치는 가운데 문화적 자극과 갱신, 그리고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돌이켜보면 한국설화라는 이름으로 전승돼온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본래부터 완전히 ‘우리것’이었던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상당 부분은 외국으로부터 수용되어 토착화된 것들이다. 그 이야기가 문학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포용하여 문화적 자산으로 삼는 것이 사리에 합당한 일이 된다. 우리는 근대변환기에 쏟아져 들어온 서구의 설화들이 한국어문학에 가져온 변혁을 가져온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 변화가 제국주의와 결합된 ‘선진 문화의 공략’에 가까운 것으로서 빛과 그림자를 함께 지나는 것이었다면 오늘날 상황은 그와 또 다르다. 21세기 한국의 다문화 설화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저평가돼온 제3세계 구비문학 전통의 발현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생활에 밀착된 밑으로부터의 문화적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소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그 가치가 발현될 통로가 제대로 열려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주자와 정주자가 설화를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극히 예외적인 일이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자국민 사이에서나 다문화가정 내에서도 설화를 말하고 듣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한다. 어찌 보면 이러한 현상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설화의 현장적 소통이 단혀 있는 상태이니 말이다. 21세기 들어 설화문화의 회복 조짐이 보인다고 했지만, 그 동력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다문화 이주민들은 현장 설화문화에 새로운 자극과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체다. 그들이 지니고 있는 설화는 낯설고 흥미로우며 의미로 충만해 있다. 언어적 장벽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주민들 가운데 한국어로 설화를 구연할 만한 이들이 아주 많다. 그들은 문화적으로 완전한 능력자이거

니와, 그 능력은 최대한 발휘되어야 한다. 이주민들의 자기정체성 확보와 자존감 향상을 위해서이기도 하며, 한국 언어문화의 갱신과 발전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어느 쪽에 어떤 유익함이 있는가를 떠나서, 설화를 주고받는 과정이 그 자체로 소중한 삶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먼 옛날부터 이어져온 언어적 정수로서의 설화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를 함께 빛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한국이라는 공간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했지만, 설화의 소통적 힘은 세상 모든 삶의 공간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다. 살아온 내력과 문화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자리에서 설화는 문화적 소통과 인간적 교감의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 잘 알듯이 한국인은 세계 수많은 나라로 퍼져서 살아가고 있다. 그 나라 사람들과 현지어로 훌륭히 소통할 수 있는 능력자가 부지기수다. 그들이 그 언어능력을 생활의 도구로만 삼는다면 안타깝고 불행한 일일 것이다. 그것은 문화적 자기표현과 문화적 소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 주요 축을 이루는 것이 설화를 비롯한 구비문학이다. 외국인과의 소통함에 있어 한국의 옛이야기는 소중한 교감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비록 한국어가 아닌 타국어로 구술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국어문화의 정수를 세계에 펼쳐내는 일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는다. 좀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영어로 한국의 옛이야기를 구연하는 스토리텔러들이 생겨나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없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¹⁶⁾

설화는 말해지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야기를 가두어두면 병이 나고 독이 된다. 봉인된 이야기 주머니를 열어서 설화들이 마음껏 세상을 흘러 다니게 해야 한다. 한국에 사는 한국인과 외국에 사는 한국인, 한국에 사는 외국인

16)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을 하고 있는 스토리텔러로 ‘아리랑 스토리텔러’ 김승아와 방동주 알리시아 등이 있다. 이들은 국내외에 걸쳐 활동하면서 국제 스토리텔링 무대에도 오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등등의 이야기 주머니를 두루 활짝 열어야 한다. 미래 한국어문화를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살려내기 위한, 온 세계에 행복한 언어문화를 펼쳐내기 위한 가깝고도 효과적인 길이다.

참고문헌

- 강진옥, 『이야기판과 이야기, 그리고 민중』, 서대석 외, 『한국인의 삶과 구비문학』, 집문당, 2002: 33~51쪽.
- 김미혜, 「다문화 문식성 신장을 위한 문학교육의 방향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6권 1호,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2013: 5~31쪽.
- 김영순 · 허숙 · 웅원뛰언아잉, 「결혼이주여성의 자기문화 스토리텔링 활용 표현교육 사례 연구」, 『비교문화연구』 제25집,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2011: 695~721쪽.
- 김영옥, 「결혼이주여성의 경험 쓰기 : 새로운 재현 방법으로서의 민족지적 이야기 생산」, 『여성학논집』 31집 1호,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2014: 117~143쪽.
- 김태원, 「생활세계와 이방인으로서의 결혼이주민」, 『현대사회와 다문화』 4권 1호,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2015: 1~26쪽.
- 김혜영, 「다문화 문식성 교육 내용 체계화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박인기, 「문화적 문식성의 국어교육적 재개념화」, 『국어교육학연구』 12, 국어교육학회, 2002: 23~54쪽.
- 서 혁, 「다문화 시대의 국어교육과 다문화 문식성 교육」, 『국어교육연구』 48, 국어교육학회, 2011: 1~20쪽.
- 신동훈, 「삶, 구비문학, 구비문학 연구」, 『구비문학연구』 제1집, 한국구비문학회, 1994: 149~180쪽.
- 신동훈, 「이야기꾼의 작가적 특성에 관한 연구-탐골공원 이야기꾼의 사례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6집, 한국구비문학회, 1998: 169~212쪽.
- 신동훈, 「이야기문화의 세대별 양상과 경험적 담화」, 『구비문학연구』 제17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 41~87쪽.
- 신동훈, 「구술소통능력과 구비문학-설화의 인지체계와 의미구조를 중심으로」, 『화법연구』 제33호, 한국화법학회, 2016: 59~92쪽.

윤여탁, 『다문화교육에서 문학교육의 지향과 다문화 교사 교육』, 『다문화사회연구』 6권 1호,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2013: 59~79쪽.

윤여탁, 『다문화 사회의 문식성 신장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전략-문학교육의 관점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94, 한국국어교육학회, 2013: 7~29쪽.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Immigrants Telling Tales as New Korean Literature

—In order to extend and enhance the quality of multicultural literacy—

Shin, Dong-h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multicultural immigrants telling tales as a response to this current trend: the globalization and futuristic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cultur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conducting filed work on oral literature targeting immigrants, they are becoming the new and meaningful agents of Korean literature. The tales they tell have great cultural significance equipped with both ethnic specialty and prototype universality. As the essence of oral culture, folk tales vividly exhibit aesthetic power as well as valuable world view. It is particularly noticeable as it forms a new territory of Korean literature in terms of narrating agents and contents. In fact, it can be the drive and stimulant to recover folk tale telling culture that is in crisis now in a new way.

What this study specially focuses on regarding immigrants telling folk tales is the process of cultural communication and extension. The process that immigrants and settlers sit down together and tell and listen to a tale itself is characterized as a field to actualize culture vividly. Multicultural communication grounded on folk tales is noteworthy in the following aspects. First, it is where knowledge and information of language and culture can be extended most effectively and densely. Second, through insight about the hidden context of culture, one can understand other culture more deeply and objectively. Third, tale-telling realizes bidirectional understanding and extension of culture through mutual communication and communion effectively. Fourth, cultural communication grounded on tale-telling actualizes deep and natural humane communion and harmony. Communication with immigrants through folk tales can be said to be the best way to enhance multicultural literacy which is a new trend of language and literature education.

Racial migration and encountering extraneous culture create precious opportunities to re-create culture in a more developmental way. It is

necessary to accept immigrants' tales as Korean literature positively and secure them as our cultural property wisely. This will help immigrants to solidify their own identity and elevate their self-esteem, and it can also be the drive to revive and develop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Breaking the border between Koreans and immigrants, we should vitalize literary communication overall through folk tales. It would be the shortest and most effective path to unfold happy and beautiful language culture.

Key words multicultural society, marriage immigrants, oral literature, folk tales, cultural communication, cultural literacy, multicultural literacy

본 논문은 2017년 7월 3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7년 9월 1일 심사 완료하고,
2017년 9월 6일 게재를 확정하였음.